Econ Snapshot

Economy | 2025.7.4

Economist 전규연 kychun@hana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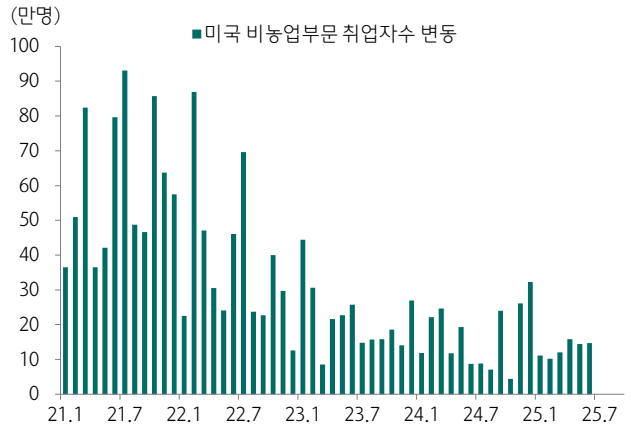
RA 김형균 hyungkyunkim@hanafn.com

미국 6월 비농업 고용: 견조한 숫자, 그렇지 못한 내면

미국 6월 비농업 고용 Re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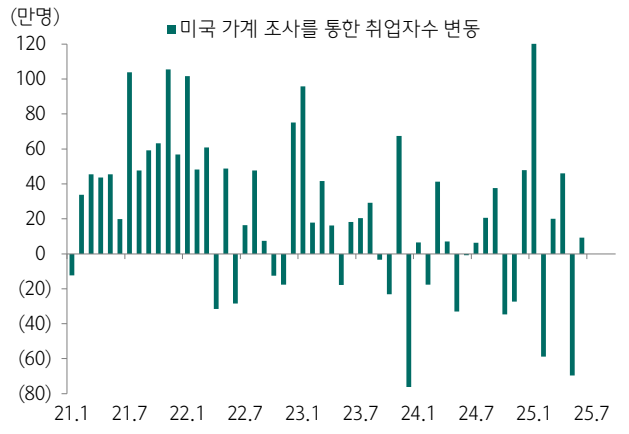
- **미국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4.7만 명 증가**하며 예상치(10.6만 명)를 상회
- 직전 2개월 취업자수는 총 1.6만 명 상향 조정(4월 +1.1만 명, 5월 +0.5만 명)
- **정부 및 서비스업 고용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.** 정부 고용이 5월 0.7만 명 → 6월 7.3만 명으로 증가했는데, 이는 주/지방 정부 고용이 교육 부문 위주로 증가한 데 기인. 정부효율성부서(DOGE)로 인해 보류되었던 인력 채용 영향이 주요한 듯 하나, 정부 교육 관련 일자리 증가는 추세의 지속 가능성이 낮고 계절적 변동성이 높은 점 염두에 둘 필요
  (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 정책 영향으로 연방정부 고용은 6월에도 0.7만 명 감소. 1월 이후 누적 6.9만 명 감소. 유급 행정휴가 상태인 직원들은 아직까지 고용된 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)
- 민간 업종은 헬스케어, 사회복지 부문 고용이 증가. 헬스케어 고용은 전월보다 3.9만 명 늘어나며 12개월 평균(4.3만 명)을 하회. 사회복지 부문은 개인 및 가족서비스를 중심으로 1.9만 명 증가. 전반적으로 민간 부문 고용 모멘텀은 약화되는 모습
- **미국 6월 실업률은 4.1%로 전월(4.2%)대비 하락**했으며 예상치(4.3%)를 하회. 실업률(=실업자수/경제활동인구)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보면 실업률은 1월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는데, 금번 실업률은 4.12%로 둔화되며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낮춰줌.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62.3%로 하락(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)하며 실업률 둔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금번 실업률 호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. 구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못한 잠재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양상
- **미국 6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.2% 상승**하며 예상치(0.3%) 하회. 제조업, 서비스업 임금 모두 전월보다 둔화
- 정부 주도의 고용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민간 고용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금번 고용지표 호조에 큰 의미 부여는 어려울 듯. 5월 Jolts 구인자수는 전월대비 37.4만 명 증가했지만 6월 ADP 고용은 -3.3만 명 감소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들 간 상이한 흐름이 나타나는 국면
- 금번 고용지표는 7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지만, 노동 수급이 균형을 향해 가고 있고, 향후 빈 일자리 소진까지 소요되는 기간(2.1개월)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

도표 1. 미국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4.7만 명 증가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2. 가계 조사를 통한 취업자수는 9.3만 명 증가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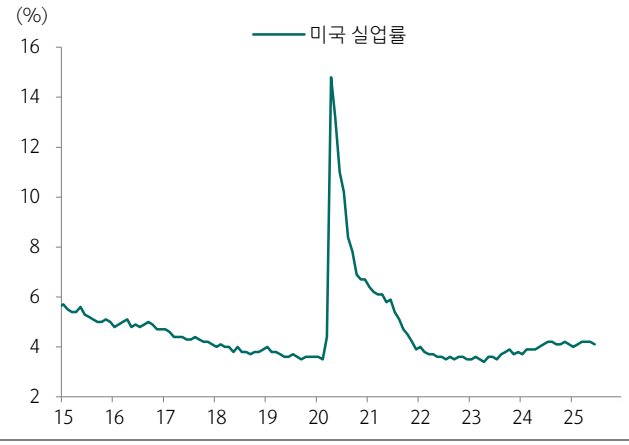
도표 3.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업종별 증감

(단위: 천명)

			2025-06	2025-05	2025-04	3MA
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변동			147	144	158	150
	민간		74	137	133	115
		재화생산	6	-4	2	1
		광업	-2	-3	2	-1
		건설	15	6	0	7
		제조업	-7	-7	0	-5
		서비스업	68	141	131	113
		도매업	-7	4	1	-1
		소매업	2	-7	5	0
		운송	8	5	-8	1
		유틸리티	1	3	-1	1
		정보	3	5	1	3
		금융	3	10	5	6
		전문 및 경영서비스	-7	0	27	7
		교육 및 헬스케어	51	83	85	73
		여가/접객	20	29	18	22
		기타	-5	10	-3	1
	정부		73	7	25	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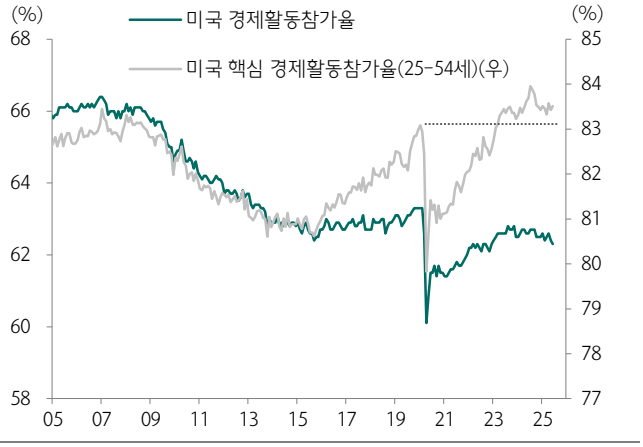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4. 미국 6월 실업률은 4.1%로 전월대비 하락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5. 미국 경제활동참가율은 62.3%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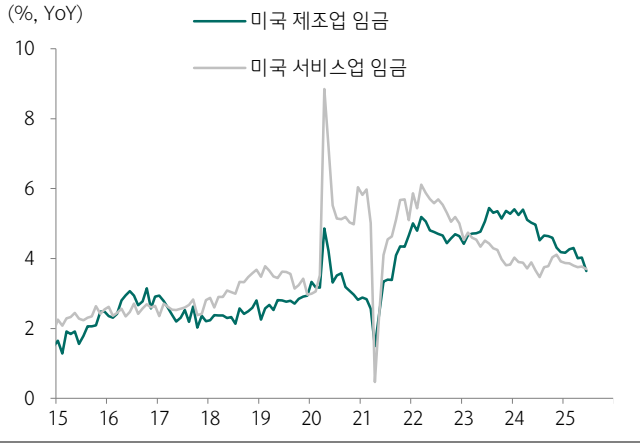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6. 미국 6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비 3.7%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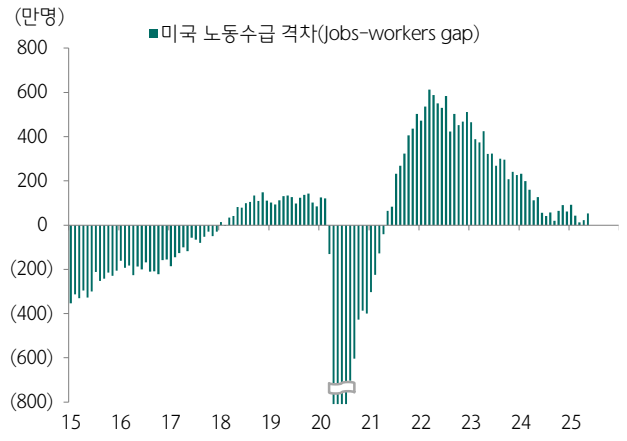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7.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임금 모두 완만한 속도로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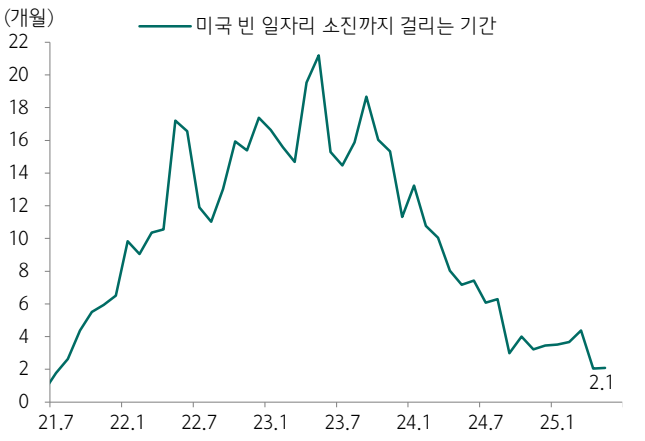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10. 미국 노동수급 격차는 53.2만 명 수준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도표 11. 빈 일자리 소진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.1개월



자료: Thomson Reuters, 하나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